

전북대, 비파괴 검사 노하우 이전

국내 반도체 검사 업체인 마인즈아이와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연구 사업 2년 간 공동 수행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소장 강래형)는 최근 국내 반도체 검사 업체인 (주)마인즈아이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전북대 로스

알라모스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테라헤르츠파 기반 비파괴 검사 노하우이다. 이 기술은 테라헤르츠파를 특정 부위에 쏘아 기기를 분해하지 않고도 기기의 결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

첨단 기술이다. 연구소는 이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해당 업체와 2년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최첨단 비파괴 검사 장비를 제작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강래형 소장은 "연구소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테라헤르츠파 기반 복합재 구조물 비파괴 비접촉 검사 기술이 기업에 이전하기로 했다"며 "해

당 기술은 산업 전반에 쓰이고 있는 적층 복합재 구조 및 페인트 도막 두께 검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는 기계, 전자, 탄소소재 및 스마트 재료, 유연인쇄전자 소자, 3D 프린팅 등 다양한 분야가 접목된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정은성기자

전주대-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 관련 세미나

전주대 산학협력단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18일 대학본관 2층 세미나실에서 '조선의 해양생물자원과 가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해양생물자원을 어떻게 분류했고 활용했는지를 알아보는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1발표자로 나서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황선도 관장이 '지식어보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황 관장은 국립수산물 과학원 연구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생태복원실장을 역임한 우리나라 대표 해양수산학자다.

제2발표자로 나서는 김건우 교수(역사문화연구원)는 '고문헌 속 해양생물자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김 교수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조선은 전복을 19개로 분류하고, 조개를 14개로 분류한 정도로 해양생물에 대한 뛰어난 국가였다. 또 고문헌 속 자료에 의하면 시대별로 어획된 물고기에 대한 변화가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가 원인이라 보고 있다.

제3발표자로 설주희 연구교수(HK+연구단)가 발표하는 '조선총독부 발간 해양수산물 관련 자료 현황'에 의하면 조선총독부는 식산국을 통해 조선의 수산업, '조선의 10대 어업'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을 뿐 아니라 정어리 통조림 등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가공 산업도 정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박선영 연구교수(한국고전학연구소)가 발표하는 '조선의 특산물 통해 본 일제강점기 해양수산물자원'에 따르면 이 시기 해양생물자원은 개발 수탈 군수라는 3개로 압축된다고 보고 있다.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은 17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2020년 JB 상생마켓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전주대 산학협력단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공동세미나 개최와 관련해 김건우 교수는 "고문헌 속의 해양생물자원 관련 내용을 활용한다면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한 해양자원 브랜드 및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주대 산학협력단 변주승 단장은 "많은 국가들이 해양생물자원 확보를 위해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번을 기회로 우리나라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해양생물자원의 주권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창업지원단 'JB상생마켓' 성료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은 17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2020년 JB 상생마켓'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JB 상생마켓은 청년창업 문화 조성 및 창업 관료 방식 확보, 그리고 청년 창업 사업가 성장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마켓을 통한 창업경험으로 청년들 간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상생의 의미도 담고 있다.

방역 준수 부스를 운영하며 구 정문 일원에서 열린 행사는 도내 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참가했다.

창업기업으로는 전통기법을 활용한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잡화, 지역 농산

물을 활용한 베이커리와 수제 펄 푸드 점 등이 참여했다.

한 참가 학생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직접 상품화하고 판매할 기회를 얻고 고객들의 반응을 통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권대규 단장은 "앞으로도 창업지원단이 우리지역의 청년들의 자유롭고 진취적인 창업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업지원단은 정기적으로 전북 지역 청년들의 우수한 재능과 제품들을 알릴 수 있는 건전하고 자유로운 프리마켓을 진행하고 있다.

/정은성기자

군산·완주 '한종목 스포츠클럽' 선정

5년간 각각 4억원 기금

군산시와 완주군이 2020년 학교연계형(한종목) 스포츠클럽 2차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한종목 스포츠클럽 공모에서 군산(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과 완주(전북풋볼이카데미)가 선정돼 앞으로 5년간 각각 4억원의 기금을 받게 됐다.

이번 공모는 지역 공공·학교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의 회원이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선정된 군산과 완주는 조만간 가칭 군산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클럽과 완주풋볼스포츠클럽을 만들어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은 옥산저수지(군산호수)에서 완주는 관내 3곳(이서 지사물·삼례 수도산·봉동 생강골)의 축구장에서 다양한 계층이 운동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수준별 취미반·심화반·선수반 프로그램 운영하게 된다.

한편 지난 한종목 스포츠클럽 1차 공모에서는 임실군(양궁 스포츠클럽)이 선정된 바 있다.

/정은성기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 공무원시험 최종합격률 높인다

전북교육청,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맞춤형 면접 특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공무원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섰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인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 면접특강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 개별면접과제(자기소개서) 작성 및 개인발표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맞춤형 면접특강으로 학생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최종합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먼저 오전에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개별면접과제 작성법 특강 및 실습을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모의면접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개인별 맞춤 피드백도 제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열별 맞춤형 면접특강을 통해 고득점 전략 및 노하우를 전수하고,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했다"며 "면접시험 대응능력 향상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이 최종합격할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인 선발에서 2017년에는 5개교에서 7명, 2018년에는 7개교에서 9명, 2019년에는 6개교에서 16명이 합격했다. 올해 필기시험 합격자는 8개교 14명이다.

/정은성기자

전북교육청,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 교원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놀이 교원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남원월타초등학교에서 남부권역 희망교원 30명을 대상으로 2023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교원연수를 운영한 바 있으며, 17일에는 군산새만금 컨벤션에서 북부권역 교원 30명, 27일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중부권역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 및 잼버리 지도

자를 양성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활동 및 개인별 놀이를 활성화해 청소년단체·동아리·학급 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청소년단체 지도자를 포함해 모든 교원으로 확대했으며, 청소년 단체 활동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연수지를 선정하고 남부·중부·북부 세 지역으로 나눠 연수 장소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석문 전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과 신소영 교사(금자동초등학교)가 강사로 나서 수신희, 개인 및 집단놀이, 포크댄스 및 동요댄스를 소개한다. /정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